

금남로 사진관

“답답했나요? ...하지만 마스크 아직은 써야 할 때”



광주 동구 동명동 길가에 누가 흘린건지 모를 마스크가 떨어져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에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출시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그나마 숨쉬기가 편하다고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미 완판됐다. 시중에서 구입하려면 아직은 시일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진 현재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써야 할 형편이다. 시민 중에는 ‘청정지역 광주에서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에 아예 착용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촘촘한 방역 체계라도 밀집, 밀접, 밀집된 시설에서는 효과가 반감된다. 수도권 등지의 다단계식 건강용품 세미나 같은 곳에서 확진자들이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다. 우리의 작은 방심을 바이러스는 놓치지 않는다. 마스크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물품이다. 아무리 덥더라도 아직은 써야 한다. /글=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캠코 광주전남본부, 청렴의지 다짐 ‘꽃바구니’ 제작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홍창의)는 6월 첫째 주를 ‘청렴윤리 주간’으로 정하고 최근 직원들과 ‘청렴 꽃바구니’를 제작하며 청렴의지를 다졌다. 청렴 꽃바구니 제작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의식을 향상시켜 대외에 반부패·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마련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멘토들에 받은 사랑 마스크로 보답해요”

광주 임곡중 학생들 마스크 보은

장학금 준 ‘도담 길재비’ 멘토들에게 감사 마음 담은 손편지와 함께 전달

광주시 광산구 임곡중학교 학생들이 ‘도담 길재비’ 멘토들에게 ‘사랑의 마스크’를 전달했다. 임곡중학교(교장 김성철) 학생회(회장 나준엽·3년)가 최근 멘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마스크 전달식’을 열었다. 학생들은 멘토들로부터 받은 장학금 일부를 각출해 면 마스크를 준비했다. 이들은 마스크와 함께 ‘고맙습니다. 도담멘토!’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멘토들에게 전달했다. <사진>



‘도담 길재비’는 ‘도담 멘토 길재비 프로그램’의 애칭이다. 이 프로그램은 임곡중학교 교직원·지역주민·동문으로 구성된 멘토들이 학생들을 위해 매월 1인 1구좌 1만원씩 모아 마련한 장학금이다. ‘길재비’는 나아가길 방향이나 목적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을 뜻하는 방언이다. 나준엽 학생회장은 “‘사랑의 마스크 전달식’은 멘토들께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임곡중학교가 널리 알려져 많은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곡중학교는 현재 전교생이 14명인 미니학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자원 전남북부권지사, 코로나19 대응 모의훈련



수자원공사 전남북부권지사는 최근 평형정수장과 합평정수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가정한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했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연부 제공>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SBS/KBC),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for the day.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including news, education, and entertainmen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9일 (음운4월 18일 癸未) ☎ 010-9790-8237. A horoscope section featur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for the day.